

Part 2 - 시장을 읽는 눈

원화가치 몰락에 따른 대응 방법 — Part 2 마지막 회차의 정밀 풀이

- 정리 2026-05-11

한 줄 단면

박종훈의 경제 로드맵 / Part 2 시장을 읽는 눈 4장 / 2026-02-26 게시.

1. 환율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 그리고 계단식으로 급락한다

최근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는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1달러당 1,100원 수준을 일관적인 환율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환율이 1,430원 아래로만 내려가도 달러가 저렴하다고 느낄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1년에 약 3,500조 원을 수출하는 나라이고, 환율이 흔들리면 수출 단가가 흔들리고, 수출 단가가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문제는 앞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화 가치는 일정하게 선형으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계단식으로 급락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일정 기간 가치가 유지하다가 어느순간에 급격히 하락하고, 한 번 떨어진 가치는 또 다시 상당 기간 그 수준에 머무릅니다. 1,400원대를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л 때쯤, 다시 한번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방식으로 충격이 옵니다. 이번 강议는 그 충격이 왜 발생한 것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제는 Part 2 「시장을 읽는 눈」 시리즈의 **마지막 회차이자 결론**입니다. 1강 글로벌 불복, 2강 40년 저물가 시대 종언, 3강 달러 가치의 미래에 관해 평행론에 이어, 4강은 **원화 가치의 미래**입니다. 3강이 짚은 결론 "달러가 아무리 몰락해도 원화보다는 달러가 훨씬 강하다"의 정밀 풀이가 본 회차입니다.

2. 값싼 일본(Cheap Japan)의 자괴감 — 통화 가치 추락의 실증

일본의 대응 초입은 스위스의 3분의 1 수준이고, **한국의 70% 수준**입니다. 해외에서 3년 원에 달하는 렌치 세트를 일본에서는 5년 원에 줄릴 수 있습니다. 일본 만화 도사 「**安いニッポン**(안이 닛폰)」이 일본 사회에서 화제가 된 것도 이런 가격적 빈곤을 일본 스스로 직시한 사례입니다. '낮은'은 일본을 자랑스럽게 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거기에 "싸다"는 의미의 '야스이'를 결합할 것이 바로 "값싼 일본"이라는 자괴감의 표현입니다.

이는 가성비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다른 나라 사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지난해진 현물을 부르고는 여기는 것**입니다. 외국인인 일본 물가가 저렴하다고 감탄할 때마다, 일본인은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졌는가" 하고 자괴감을 겪습니다. 이는 통화 가치가 한 나라의 구매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증 사례입니다.

따라한 일본의 과거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처한 여러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일본이 겪어온 길을 미리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 인용: 中藤隆著, (2021), 「安いニッポン — 「価格」가 시사하는 停滞」, 일본 다이아몬드사 발행.

3. 일본의 가팔 시대 — 슈퍼 엔화가 만든 흥청망청

일본 역시 1980년대에는 네덜란드의 '가팔 시대'와 유사하게 흥청망청 소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일본 스스로 '버블 시대 (バブル時代)'라 부릅니다.

일본 버블 자산 매입 폭주의 흔적

사건	금액
미쓰비시, 록펠러 센터 매입	8.4억 달러 (1조 2천억 원) — 미국 언론이 '제2의 일관된 금융'이라 칭함
야스다 상사, 반고흐 해바라기 매입	3,990만 달러 (580억 원) — 당시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
택시 집기	1만엔 (10만엔) 홀몰이
면접 참가비	10만엔 (100만엔) 용돈 지급

이러한 풍요는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 대기업 면접에 참여하면 약 30만 원의 용돈을 받았고,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일국은행 정도였을 만큼 면접비 지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면접만 보아도 돈을 주면, 그리고 돈을 주면 더 낙차나던 시기를 경험했고, 일본의 버블 시대는 그 정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힘: 슈퍼 엔화

연도	1\$ = ?엔	사건
1985	240엔	플라자 합의 + 국력
1987	120엔	버블 조항
1995	80엔	실물 경제 + 권성
2012	-80엔	인전 저산소 시작
강의 시점	156엔	14년 지속 하락

1985년 플라자 합의 이전 1달러 240엔에서, 일본의 막강한 국력과 플라자 합의가 결합해 환율이 120엔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엔화 가치가 두 배로 상승한 징표입니다. **1달러당 1,400원이었던 원화 환율이 갑자기 700원이 된 것**과 같은 변화가 1985-1987년 2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만약 환율이 700원이라면 우리도 해외에서 훨씬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인은 1980년대 말에 왔습니다.

1995년에는 환율이 80엔까지 더 낮아졌고, 글로벌 금융 위기 시 엔화가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2012년까지 80엔대가 유지됐습니다. 이러한 강성한 엔화의 시대 덕분에 일본인은 1989년 버블 붕괴 이후에도 2000년대 초반까지 강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이후 — 엔화의 지속적인 몰락

기점은 **2012년 아베노믹스의 시작**입니다. 2012년 1달러를 사기 위해 80엔이 필요했던 환율은 **강의 녹화 시점에 156엔까지 치솟**았습니다. 2012년 이후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것이고, **우리나라 상황으로 환산하면 1,400원이었던 환율이 2,800원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지난 14년간 이 상당액 막달감을 겪어왔습니다.

엔화 몰락의 3가지 이유: 1. 아베노믹스의 대규모 양적 완화 2. 초저금리 정책의 장기화 3. 재정 확대로 인한 국가 부채의 폭증

이 세 가지가 14년간 지속되면서 엔화 가치는 결국 **반 토막** 났습니다.

4. 일본 2012년 ↔ 한국 2022년 평행이론

4.1 표면적 이유 — 경제정책 4축

일본의 2012년	한국의 2022년
대규모 양적 완화	저성장인데 M2 증가
초저금리 장기화	한국의 저금리 정책
재정확대로 국가부채 폭증	세수빙고 > 확장재정

한국은행은 통화량(M2) 증가에 대해 GDP 대비 비율을 언급하며 해명하며, 이는 **핵심을 벗어난 답변**입니다. 경제 성장률보다 M2 증가율이 더욱 높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M2가 감소한다면 그것이야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2022년부터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M2는 계속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본의 양적 완화와 매우 유사한 효과를 낳습니다.

또한 일본은 G2 국가로서 재로 금리를 강압할 체력이 있었지만, **G10 수준이었던 한국이 유지하는 저금리 정책은 사실상 일본의 재로 금리와 비슷한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2022-2024년 세수 결손 + 원 자국의 확장 재정 기조. 어느 쪽 정권의 책임이냐를 떠나 결과는 일본과 같습니다.

13 외부 자료 검증: 한국 일반 정부 부채 GDP 비중은 **2019년 39.7% → 2026년 54.4%, +14.7%p** 증가, G20 평균 증가폭 9.5%p의 약 1.5배입니다. 한국은 OECD 38개국 중 36개국과 달리 **재정 총량(fiscal rule)이 없는 나라**입니다. 강의의 "세수빙고 > 확장재정" 진단이 외부 데이터로 정량 검증됩니다.

4.2 근본 원인 — 인구구조 악화 (한국이 더 취약)

경제적 정책이 같아 해도 그 근본 원인이 다르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는 인구구조도 거의 동일하다고 진단합니다 — **한국 2025년 인구 피라미드 는 일본 2007년 인구 피라미드**

문제는 한국이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국가	합계 출산율
일본 2007/2008	1.3명
일본 최근	1.1명
한국 (단순에 하력)	0.75명
한국 (소폭 회복)	0.8명

G10면서 인구 구조는 일본보다 더 취약한 이치고, 일본이 G2였음에도 환율 80엔 → 156엔으로 두 배 하락한 사실은, G10인 한국에 더 심각한 신호입니다.

4.3 통화까지 막살의 메커니즘 2축

1. **성장 잠재력 추락** — 환율은 그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척도. 소비만 하는 고령 인구 급증하면 무역 흑자가 축소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잘해도 공배로 원화 가치 상승은 안 됩니다. —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어야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2. **부양비 폭증과 재정적자의 늘** — 세금을 낼 사람이 사라지고 복지 받을 사람만 급증. 이는 로봇 기술로 해결될 생산성 하락에 따라 **세수 기반의 붕괴 문제**입니다. 국제 발행이 늘어나면 결국 중앙은행이 매입하게 되고, 그 결과가 통화량 증가 + 해외 가치 하락입니다.

5. 저금리의 함정 — 3단계 모델

단계	현상	한국 위치
1단계	초기엔 국내 자산 가격 폭등	🟢 진행 중
2단계	장기적으로는 해외로 자본 유출	🟢 진행 중
3단계	기존금리 관계없이 시장금리 발각 급등	🔴 진입 신호 있음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원화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춰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돈을 빌려 투자할 곳이 없어 자연스럽게 금리가 하락합니다. **일본은 고령화 기조에 저금리를 겪었던 이유**입니다.

1단계에서는 국내 자산 가격이 폭증합니다. — 최근 코스피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 모습입니다.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한계에 부딪히고, 자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며 **2단계 자본 유출**이 발생됩니다. **3단계는 한 번 진입하면 쉽게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 — 중앙은행 정책과 무관하게 시장 금리가 급등합니다.

3단계로 전환되는 핵심 동력은 **시장 저축 총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쿠즈 5번 정수). 고령화가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면 저축은 줄고 소비는 늘면서 시장 자체가 더 이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때 시장금리는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튀어오릅니다.

6. 일본 30년물 금리의 한국 추월 — 중국 이래 최초

30년물 금리	강의 시점
일본	3.63%
한국	3.59%

올해 1월 일본 30년물 금리가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2월 들어 다시 한국이 소폭 높아졌지만, **1월에 일본 금리가 한국 금리를 넘어선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대서특필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환율이 이미 고평화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이자, 한국이 그 뒤를 따르다는 경고입니다.

13 외부 자료 시간 연장: 2026년 5월 6일 기준 한국 30년물은 **3.844%**로 2023년 11월 이래 **2.5%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같은 시점 미국 30년물은 **5.025%**, 영국 30년물은 **5.742%** — 강의의 신호등 5% 위기 임계를 글로벌 채권시장은 이미 돌파했습니다. 한국도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6.1 시차 단축 우려 — 일본 9년 vs 한국 5년

일본 흐름	한국 흐름
2012 아베노믹스 시작	2022 악순환 시작
2015 1차 상승 (80→120엔) — 3년 시차	2024 1차 상승 (1,200→1,480엔) — 2년 시차
2021 엔화 본격 붕괴 (160엔) — 9년	?

일본은 본격적인 통화치기 붕괴까지 9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4년에 1차 상승을 경험했고, **'빨리빨리' 문화 특성상 일본에서 10년에 걸쳐 치러질 일이 5년 내로 압축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6.2 기초 체력의 결정적 차이

일본	한국
30년 엔고 시대로 축적한 막대한 해외 자산	해외 자산 축적 시간 절대적으로 부족
순외채권 4조 달러 = 6천조 원 — 자본 이득으로 경제 지탱	외채 가구 순자산 중 75%가 부동산 (로컬 자산)
14년간 막대한 돈 풀어도 버틸 수 있음	직무 충격에 대응하기 어려운 자산 구조

부동산은 수출 불가능한 내수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불리한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7. 은마 아파트 — 원화 가치 실질 추락의 실증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 화폐의 시간 단위

> 급락 = 지난 6,000년 인류와 함께한 전통의 화폐 - **달러 종이돈**: 170년밖에 안 된 신생 화폐 - **한국 원화**: 64년밖에 안 된 초신생 화폐

은마 아파트 vs 금 1kg가격 vs 아파트 = 금kg

연도	은마 아파트 (원)	금 1kg (원)	아파트 = ?금
2005	7.5억	1,860만	40kg
2015	12억	4,800만	25kg
2025	37억	2.4억	15kg

2005년이 분기점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고성장을 이어갔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원화율은 7.5억에서 37억으로 약 5배 올랐지만, **금으로 환산하면 40kg → 15kg으로 1/3 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실질 가치의 하락을 거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해 온 것일수록 물가면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강의의 시간 단위 차이(원화 64년 vs 달러 170년 vs 금 6,000년)에서 비롯된 안전성의 위계입니다.

> 쿠즈 6번 정수: 은마 아파트 금 대비 권유 X. 본 문서는 강의 정리와 관련된 **유동성 공급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

8. 3단계 진입 위험 신호 3종

저금리의 함정 3단계로 진입할 때 시장에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강의는 매릴 점검할 수 있는 3종을 정리합니다.

8.1 [1] 회사채 동맥 경화 (Credit Crunch)

> **회사채 동맥 경화**: 우량 기업(예: 한진, 대기업 계열사)이 발행한 채권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유혈'**되는 **발적적 현상** (쿠즈 7번 정수)
발적 패턴: 2022년 아베노믹스 사태 — 정부 개입으로 간신히 막음 → **부동산 버블 작용** — 이후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붕괴 - 2027년 이후 시장 시 대응 능력 부족

13 **3단계 진입** 당시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를 막았지만, 이는 **부동산 버블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2022년 말 구조조정 대신 유동성 공급을 택했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해 상대적 막달감을 느꼈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팽창적-확장적 정책이 2022년까지 5년 연속 이어지는데, **2027년 이후에는 원화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달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말저렴 우량 기업에 회사채가 팔리지 않는 현상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8.2 [2] 국제 금리의 발적적 급등 (Bond Vigilantes)

10년물 국제 기준 임계:

금리 임계	신호 단계
4% 돌파	경계 경보
4.5% 돌파	대미 신호
5.0% 돌파	위기 신호

올해 1월 일본 10년물 국제 금리가 작년 2.6% 수준에서 갑자기 3.7%까지 치솟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일본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고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엔 캐리 트레이드**가 **주금 청산**입니다. — 엔 캐리 트레이드는 다행이 아닐뿐더러 이미 같은 선진국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신중국 시장에서 먼저 금리가 빠져나갑니다**. 일본 금리가 급등하면 미국에서는 신중국, 특히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투자 규모가 큰 한국이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강의 녹화 시점 10년물 금리는 3.4%로 소강상태. 다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2.6%까지 하락했던 금리가 결국 3.4%까지 상승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입니다. 시중에 유동성 가물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는 시사입니다. **3.8%, 3.9%를 거쳐 4.0%에 걸치는 순간부터는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11 외부 자료 시간 연장: 2026년 5월 4일 기준 한국 10년물은 **3.91%**, 강의 시점 3.4%에서 3개월 만에 **4% 경계 경보 직전까지 도달**. 1년 전 대비 +1.31%p 상승. 강의의 신호등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8.3 [3] 금리·환율 동반상승 죽음의 나선 (Death Spiral)

정식 작동: 금리↑ → 원화 인전 등 유입↓ → 환율 안정.

비정상 (위기) 신호: 금리↑ + 환율↑ 동시 = "**이자 더 뒤도 싫다, 한국 탈출이 목표다.**"

10년물 국제 금리가 3.8%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환율도 동반 상승하는 것이 죽음의 나선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정상이라면 금리가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어 환율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그게 반대로 가는 것 —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포기하고서라도 한국을 탈출하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현상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눌릴 필요가 있습니다.

12 외부 자료 시간 연장: 2026년 5월 5일 USD/KRW는 **1,469원**, 한 주 전 1,454원에서 약세. 강의의 공격적 매수 기준(1,435원) 위로 자리잡았으나, 금리·환율 동반상승의 발적 형태는 아직 본격 단계 X. 모니터링 대상.

8.4 계단식 환율 움직임

환율은 계단식 움직이는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2012년 80엔이던 환율이 예나저나 움직일 후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점을 활용하여 환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9. 대응 전략 —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9.1 한국 국민의 코스피 참여 현황

비율	의미
약 15%	코스피에 적극 투자
27%	단순 주식 보유
85%	미참여

이미 코스피에 투자한 분은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주가가 급등 후 조정을 받아도 매수자보다는 높은 상태. **어머에서 팔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익질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신규 진입로 익질 마진입니다. **안전 마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급등하는 시장 끝자락에 올라섰다가 갑작스러운 하락을 맞으면 큰 손실을 손절매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9.2 워렌 버핏의 펀치 카드 비유

> 워렌 버핏: "투자는 인생에서 단 20분만 펀치 카드를 찍을 수 있는 기회와 같다."

폭락 주기	미국 주가 지수	한국 코스피
평균 4년 주기	20% 이상 폭락	30~40% 하락
7-8년 주기	—	30% 이상 대폭락

펀치 카드를 찍을 최적의 시점은 **시장이 대폭락을 겪은 후 서서히 회복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금리처럼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소중할 펀치 카드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4년 주기의 20% 하락기간이나 7-8년 주기의 30% 이상 하락할 같은 절호의 기회에** 사용해야 합니다.

9.3 로컬 자산 vs 글로벌 자산

로컬 자산	글로벌 자산
원화	달러
한국 부동산	금
한국 주식	나스닥 등 달러 표시 자산

로컬 자산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로컬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해 글로벌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변동성 대비 안정성·수익성을 동시에 지키는 전략**입니다.

다만 최근 매크로 전쟁과 미국 자국 중시주의 정책으로 인해 나스닥이나 미국 국채의 글로벌 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강력한 글로벌 자산입니다.

9.4 두 경우 — 강의 결론

· **이미 코스피·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자산이 늘어난 만큼 **달러 자산과 금 비중·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경우: 코스피 vs 글로벌 자산 둘 다 가능
· 단, **음속된 예나저로 환율 계산식 상승 위험이 함께 커진** 점을 인식해야 함

10. 달러 자산 확보 — 2019년부터의 일관된 기준

전략	매수 기준
저의 과거 전략	3년 평균 이하 (1,370원)면 매수
저의 최근 전략	1년 평균 이하 (1,420원)면 매수
공격적 전략	6개월 이하 (1,435원)면 매수

> **전략 수정 원인**: 계단식 상승 추세.

2019년부터 강사가 일관되게 제시해온 원칙은 '**3년 평균 환율 이하'**일 때 환전입니다. 가장 적극적으 환전했던 2019년 3년 평균 환율은 1,120원이었고, 환율이 1,060원까지 하락했을 때 절호의 기회로 여겨 적극적으로 환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평균 환율은 1,3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가격까지 하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최근에는 **1년 평균 환율 이하(1,420원)**로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1년 평균 환율 이하로 하락할 때마다, 달러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유폴리언은 6개월 평균 이하 시점에서 여러 차례 분할 환전하는 방법도 충분한 대안입니다.

12 외부 자료 적용: 2026년 5월 1,469원 환율은 강의의 공격적 매수 기준(1,435원) 위로 자리잡았습니다. 점진적 누적 가능 가능 구간.

> 쿠즈 9번 정수: 공격적으로 대응할 때 적절한 환전 시점은 **6개월 평균 환율 이하**일 때.

11. 금 자산 확보 — 불리한 बैं크 활용 + KRX 금시장

금 주자의 경우, 완충처럼 특정 기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환율은 중앙은행의 인위적 개입으로 균형점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금은 완전한 글로벌 자산**이므로 이러한 평균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11.1 불리한 बैं크 활용

· **초대은행(글로벌은 बैं크)**을 적으로 물리려 합니다 — 그들의 역익정이 되지 마시고, 그들의 움직임을 이용해 합시다 - **이곳은 만드는 곳**: 그들이 시장을 흔들 때(과격환 조정 시) 집중 매수

11.2 실제 사례 — 2월 2일 조정

> 2월 2일 조정 당시 금값: **1g 21만 원** - 현재 가격: **23만 4천 원**까지 회복

불리한 बैं크는 의도적으로 금값을 큰 폭으로 하락시킬 때가 있고, **바로 그 시점이 매수 기회**입니다.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거래하면 결국 휘둘립니다.

11.3 매수 방법 — KRX 금시장 선호

강사는 금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KRX 금시장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금리는 수수료와 부가기치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12. Dirty Shirt 이론 + 양동 작전 — 회차의 결론

12.1 달러도 몰락하는대 달러 자산을 권할나요?

→ 지금 우리는 경제적 힘에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몰락하는 통화인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더러운 셔츠 이론 (Dirty Shirt Theory): - 전 세계 모든 화폐(셔츠)가 더러워집니다 - **달러는 가장 덜 더러운 셔츠**다 - 원화·엔화는 곧 더 더러워집니다 - 달러조차 더러워질 것에 대비해 **금(은 약단)**을 섞어라

옷장에 여러 벌의 셔츠가 있는데 대부분이 더러운 상태라면, 그중에서 가장 덜 더러운 셔츠를 골라 입어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통화 시장에서 달러가 그 '덜 더러운 셔츠'** 역할을 합니다. 원화나 엔화는 앞으로 달러보다 더 더러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러 자산을 여전히 유효한 대안입니다.

12.2 양동 작전 — 금(방패) + 은(보조적 창)

달러마저 더러워질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금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 바로 '양동 작전'**입니다.

자산	역할
금	중요한 방어 수단인 '방패'
은	공격적인 '창' - 변동성↑, 산업용 수요 증가로 '에너지 화폐' 성격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고, 최근 산업용 수요 증가로 에너지 화폐 성격까지 띕니다. 금 가격 상승기에 은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의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는**